

먼지떨이 인생의 부활

고향 숲에 든다. 반백 년 지기 노송이 안부를 물어 온다. 따님은 건강 하냐고. 순간 뜬금없는 우환에 내 삶이 속절없이 무너지던 악몽이 되살 아나 가슴팍에 모래바람을 일으킨다. 신혼 시절이다. 돌잡이가 앓는 중 병을 감기로 오진한 시골의 늙은 의사는 닷새를 허비한 후에야 큰 병원 으로 가 보라는 처방을 내렸다. 토끼 심장으로 찾은 대학 병원의 진단 결과는 마른하늘에 날벼락이 따로 없었다.

“왜 이제 오셨어요? 하루 이틀만 늦어서도 생명이…….”

호되게 나무라는 의사 선생님의 심각한 표정을 떠올리면 지금도 온몸 의 피가 발밑으로 다 빠져나가는 듯 다리가 후들거리고 머리가 하얘진 다. 아기의 병명은 치사율 80%라는 ‘결핵성 뇌막염’이다. 이미 골든타임을 놓쳤으니 목숨 부지도 감지덕지한 일이었다. 전생에 지은 짓값일까? 암울한 처사에 눈물만 흘렸다.

결핵이 갖는 전염성 때문에 음침한 독방에 격리되어 2년이라는 긴 치 료가 시작되었다. 단독 병실 사용에 의료보험이 6개월만 허용되던 때라 병원비는 산더미처럼 쌓여 갔다. 선친이 남긴 자갈논 몇 마지기를 쏘아 부어도 모자랐다. 막노동이라도 해야 할 만큼 다급해진 나는 대구 변두 리에 있는 판자촌에 사글세방을 얻어 거처를 옮기고는 직장을 구하러 나 섰다.

그때 가깝게 지내는 지인으로부터 공기업인 전화국의 잡급직(계약직)을 제의받게 되었고, 찬밥 더운밥 가릴 입장이 아닌지라 기꺼이 승낙했다. 첫 출근을 하던 날, 지인은 내게 “성실하게만 일하면 정식 직원도 될 수 있다”고 은근슬쩍 귀뜸을 해 주었다. 자신이 추천한 사람이 조직에서 미 운 오리 새끼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으리라.

보직은 ‘먼지관리요원’이다. 인격은 없다. 그냥 한낱 청소 도구로 보면 된다. 속없는 직원들은 면전에 대놓고 “먼지떨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하는 일은 기계실에 쌓인 먼지를 떨어내는 일이다. 그러나 그것은 인건 비 명목일 뿐 실제 업무는 공중전화에서 거뒀 온 동전을 세는 일이다. 그 작업장을 ‘주화사산실’이라고 불렀는데 3명이 근무했다. 외근 직원들

이 공중전화를 순회하며 집금통(돈통)을 거둬 오면 봉인 여부를 확인하고 동전을 꺼내어 공중전화 번호와 액면별로 사산하고, 다시 빈 통을 봉인하여 교부하면 된다.

바닥을 헤매는 우리 집의 경제력과는 달리 당시 공중전화는 황금기를 구가하던 시절이라 벌어들이는 수입이 대단했다. 고객이 공중전화기에 동전을 투입하고 통화를 한 후 남은 돈이 백 원 미만이면 거스름돈을 돌려주지 않는다. 이 돈을 ‘낙전’이라고 부르는데 그 돈만 해도 당시 전국에서 한 해 동안 14억 원이나 발생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특하면 이 불로소득을 문제 삼고 나섰다. 공짜라면 양젓물도 마신다고 하지 않던가. 이 돈이 유혹의 덫이었다.

출근한 지 보름쯤 지났을까. 옆방에서 일하는 선배 직원이 퇴근길에 술 한잔하자고 제의를 해 왔다. 그간 업무도 살뜰하게 알려 주고 해서 저녁이라도 대접하려는 참인데, 내심 잘되었다고 생각하고 기꺼이 승낙을 했다. 여직원은 빠지고 둘이서 선배 직원이 종종 간다는 소주방을 찾았다. 술이 몇 순배 돌자 얼큰해진 선배가 잠시 뜬눈을 띄더니 뜻밖의 말을 꺼냈다.

“변 주사!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 오해 없이 들었으면 해요. 공중전화는 낙전과 불량 주화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집금된 전액을 불입할 필요가 없어요. 오백 원짜리 동전 한 판(50개) 정도는 불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낙전을 모두 불입한다고 해도 믿어 주는 사람도 없을뿐더러 또 어제오늘 일도 아닌지라…….”

주인 없는 그 돈을 우리가 좀 가지는 게 대수냐며 ‘좋은 게 좋다’고 자신들과 보조를 맞춰 줄 것을 은근히 내비쳤다. 설사 그 금액이 고봉밥에서 티스푼으로 한 숟갈 들어낸 밥풀처럼 소액에 불과할지라도 뺨뺨은 분명 범죄다. 그 뺨뺨한 돈으로 술을 샀다면 그 술을 같이 마신 나 역시 공범이 아닌가. 갑자기 술맛이 푹 떨어지고 취기에 몽롱하던 정신이 번쩍 들었다. “돈이 그렇게 좋으세요? 밑바닥 일을 한다고 사람까지 먼지 떨어야 되어서야 되겠습니까?”라며 그 자리에서 면박을 주고 싶었지만, 상대가 민망하고 반감도 가질 수 있기에 참았다.

다음 날이다. 동전을 세는 나의 뇌리가 복잡했다. 아침 밥상머리에서 “평생 납작 보리쌀 밥을 먹어야 한다”며 울먹이던 아내의 불멘소리가 현

금이 주는 유혹과 버무려져 자꾸 내 귀를 잡아당겼다. 어제만 해도 일말의 가치도 없다면 귀를 씻고 싶었던 말들이 아닌가. ‘주인 없는 돈’, ‘동료와의 균형’, ‘좋은 게 좋다’ 는 어휘들이 가슴을 흔들었다. 분명 나는 생계와 양심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다. 평생 값아도 부족할 병원비, 입에 풀칠하기도 빠듯한 쥐꼬리 봉급, 일수라도 짝어야 할 판국에 오히려 잘되었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양심이 밥 먹여 주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눈 한 번 질끈 감으면 될 것을……. 아니다, 이내 생각을 바꾼다. 일순 차가워진 머리가 내 가슴을 비집고 들어온 악마의 손을 삭둑 잘랐다.

“부정과의 결탁은 애초 작은 돈으로 시작되는 거야. 이깟 돈쯤이야, 하나쯤이야, 남들 다 하는데 좀 하면 어때? 이렇게 부정을 끼워 넣다 보면 나 자신도 모르게 부패의 수렁에 빠져들고 마는 거지.”

나는 독백으로 자신을 다독였다. 순간이지만 죄악과 양심의 갈림길에서 헤맨 자신이 부끄러웠다. 내 마음에도 그런 옳지 못한 어둡고 추잡한 구석이 있다는 게 싫었고, 동네 마지막 훈장으로 청렴과 예절을 삶의 숙제처럼 곳곳이 지키며 살다 가신 아버지의 도끼눈이 어른거렸다. 성인군자는 못 되어도 도둑으로는 살지 말자는 내 삶의 신념이 고작 동전 몇 푼에 흔들려서야 되겠는가.

그 후로 선배 직원이 종종 퇴근길에 술자리를 권했지만, 나는 딸아이의 병간호를 핑계로 참석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것이 왕따의 도화선이 될 줄이야. 내가 뺑땅을 하고 있다는 추문이 나돌았다. 억장이 무너졌다. 주객을 전도시킨 썩덕공론의 진원지야 불을 보듯 뻔했지만, 무작정 찾아가서 따질 수도 없는 형편이 아닌가. 당장 일을 그만두고 싶었지만 그럴 수도 없었다. 이만한 별이터를 구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냥 오명을 뒤집어쓰고 끝내기에는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허문에 휘감긴 나는 괜히 마음이 불안하여 불면증이 생겼다. 이 정도 소문이면 이미 관리자도 알고 있을 터였다. 사무실에서 호출만 하면 금시라도 뺑땅을 이유로 그만두라고 할 것 같아 소스라치게 놀라곤 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내만 깨끗하면 그만이지’ 하고 스스로 마음을 다독이며 내년에 있을 재계약 때까지 버티 보기로 했다.

지옥 같은 나날 끝에 재계약 날이 왔다. 나는 사물함을 비울 보자기를 아내 몰래 호주머니에 넣고 출근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더 이상 근

무할 일은 만무했다. 소문의 진위를 알아낼 방법도 없는 마당에 님들 현금을 주무르는 자리에 손버릇 나쁜 사람을 그냥 두겠는가. 이렇게 끝날 줄 알았더라면 평소에 관리자에게 소주라도 한잔 대접할 걸 그랬나? 그것조차 허락되지 않는 나의 대쪽 같은 성격을 탓해 보았지만, 이미 흘러간 물이었다.

국장실에 세 사람이 나란히 불려가 앉았다. 차 한 잔을 코로 마시고는 드디어 올 것이 왔다고 생각하며 마지막 인사말을 머릿속에 떠올렸다. 그때 국장님이 평소와는 달리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여셨다.

“인력 감축 때문에 세 분 모두 재계약을 해 드리지 못해 미안하네. 올해는 정규직 한 명과 두 분이 그 일을 감당해야 함세. 변 주사가 두 몫으로 열심히 일해 주게나.”

뜻밖의 결과에 모두가 놀랐다. 특히 추문으로 탈락 일순위인 내가 그들을 제치고 재계약된 이유가 뭘까 궁금했다. 후에 안 사실이지만, 일년 통계로 완성되는 ‘낙전발생률’이라는 투명한 재계약의 잣대가 존재하고 있었다. 소급도 조작도 불가능한 데이터였다. 마지막 한 닢의 동전까지 누가 보든 말든 묵묵히 불입한 내 양심의 승리였다.

그로부터 5년 뒤 나는 청렴과 결백을 무기로 내부 공채를 거쳐 정규직원이 될 수 있었다. 인생의 고비마다 샅길을 찾는 요즘 ‘진실과 정직’은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며, 편법과 불법이 곧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이고 처세이고 기술인 양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아니다. ‘거짓’은 언젠가 반드시 벌을 받고 ‘정직’은 어떤 방법으로든 보상이 주어진다. 진리다. 나랏돈을 뺏당한 국정 농단의 말로는 지금 어떠한가. 세금으로 해입은 억대의 옷은 이미 칙칙한 수의로 변했고, 뇌물로 받은 금붙이는 자신을 묶는 은팔찌가 되어 번득이지 않는다.

돌이켜 보면 한 푼의 돈이 아쉬웠던 그때 돈보다 정직을 택한 덕에 내 먼지떨이 인생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도 맑다는 속담처럼 5%의 기적으로 중병을 극복한 딸내미 역시 투명한 삶으로 지금은 선생님이 되어 아이들을 가르친다. 사랑의 세레나데를 합창하며 마지막에 웃고 있는 우리 가족은 행복하다. 이것이 바로 정직이 주는 보상이라고 나는 감히 믿고 있다.